교양의 조건

한글 맞춤법

최병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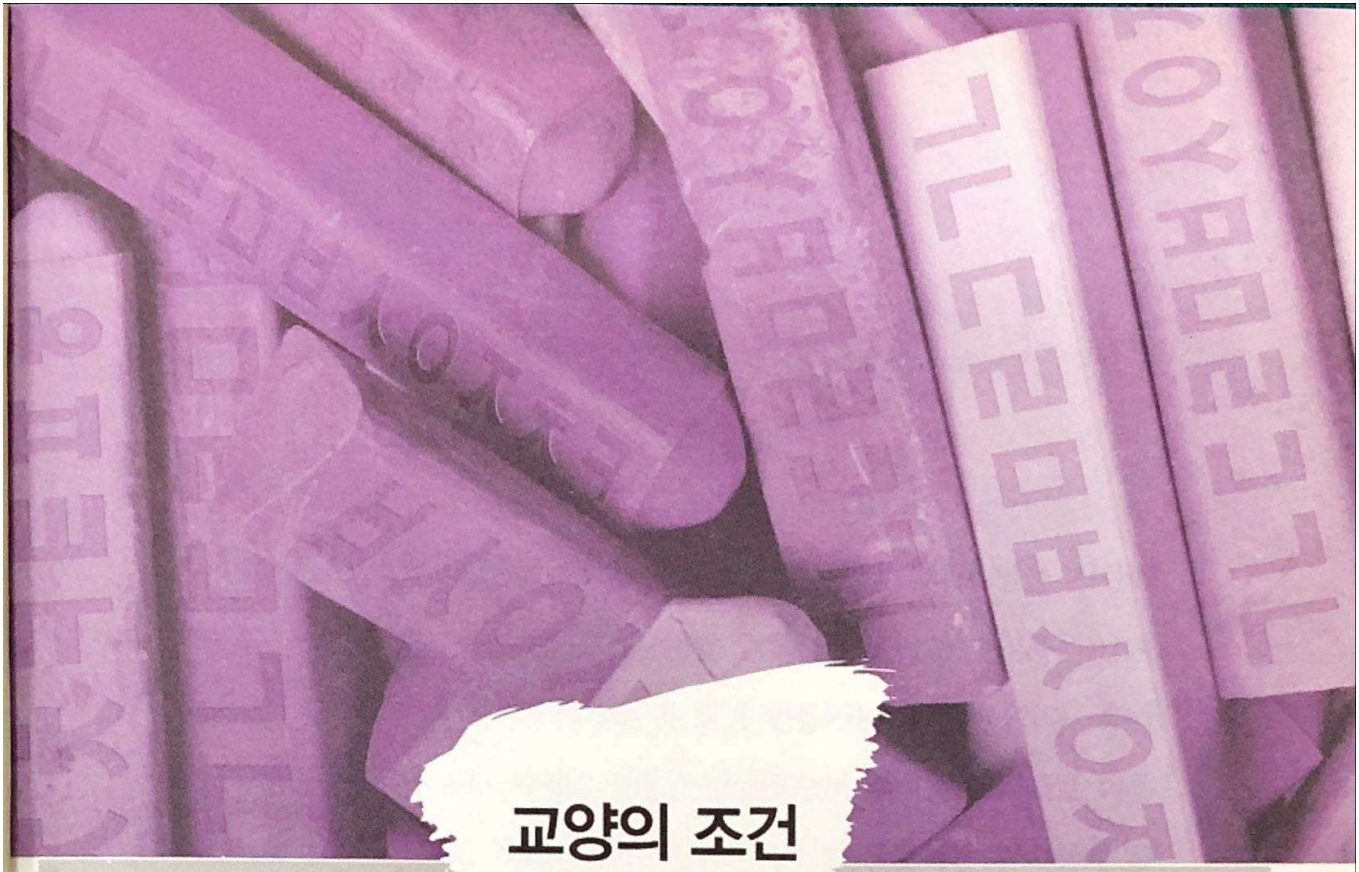
역락

저자 최병선

문학박사
한양대학교 및 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동해대학교(일본) 특임교수, 대련외국어대학(중국) 초빙교수,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 한양여대 겸임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서울교대, 상명대, 한겨레신문 문예비평학교 등에서 강의하였다. 현재는 한양대와 경원대에 출강 중이다.

논문
「이상화 시의 시어 연구」, 「국어 표기법과 발음 교육」, 「한국어 작문 능력의 향상 방안 연구」 외 20여 편

저서
『말하기로 배우는 글쓰기』, 『한글 정서법의 실제와 원리』, 『중세국어의 음절과 모음 체계』, 『동무 이제마』, 『좋은 글의 시작, 올바른 맞춤법』



교양의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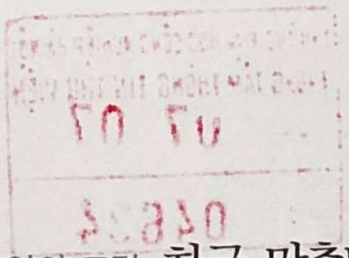
한글 맞춤법

최 병 선

TRƯỜNG CAO ĐẲNG CÔNG NGHIỆP HÀ NỘI
TRUNG TÂM THÔNG TIN THƯ VIỆN
07 07
04634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역락



교양의 조건, 한글 맞춤법

초판1쇄 발행 2009년 12월 31일 | **재판1쇄 발행** 2013년 4월 22일

지은이 최병선

펴낸이 이대현 | **편집** 이소희

펴낸곳 도서출판 역락 | **등록** 제303-2002-000014호(등록일 1999년 4월 19일)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4동 577-25 문창빌딩 2층

전화 02-3409-2058(영업부), 2060(편집부) | FAX 02-3409-2059 | **이메일** youkrack@hanmail.net

ISBN 978-89-5556-743-4 03710

정가 15,000원

*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책머리에

처음 강의실에서 '한글맞춤법'을 강의한 이후 벌써 십 년 넘는 시간이 흘렀다. 맞춤법 관련 책을 들고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욕은 넘쳐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밝게 만들기는 역부족이었다. 흥미롭게 유도하기에는 내용 자체도 어렵고 따분했으며 교재는 교재대로 너무 어렵기만 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한 해설이 정심한 책보다는 친숙하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을 엮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런 소박한 동기에서 시작하여 책을 여러 차례 고쳐 내던 가운데 강의가 끝난 뒤에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 전공과 무관하게 일상 언어생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엮으라는 주변의 요청이 있었다.

맞춤법은 어렵다. 최근 들어 우리말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어의 존대법 조사와 어미가 어렵다는 등의 토로가 이어지는데 빠지지 않는 불만거리가 또한 맞춤법이다. 문자 없는 외국에 전수하기에 가장 좋은 문자인 우리 한글이지만 맞춤법이라는 규정만은 교양의 척도이면서 동시에 익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모양이다. 맞춤법 즉 정서법의 수준은 학습 정도와 관심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올바르게 쓰기 위해 노력하였느냐가 곧 맞춤법의 수준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내용을 엮으면서 맞춤법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 한편으로는 학습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책이 되

기를 바랐는데 아무쪼록 이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교육현장에서 틈틈이 메모하고 생각한 것을 정리한 것에서 시작하여 초기 작업의 부족함을 깁고 더한 것이다. 다른 책에서 보이는 상세함과 깊이를 담고 싶은 욕심이 일 때마다 이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어렵지 않고 정리가 잘 된 내용을 담는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을 접을 수 있었다. 이 책은 한국어문규정 가운데 학습이 필요한 부분들을 각각 1부와 2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1부에서는 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어문 규정들과 현장에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내용들을 다루었다. 어휘와 관련하여 혼란을 빚는 경우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어들을 제시하고 오류를 바로 잡아 두기도 하였다. 2부에서는 '한글맞춤법'을 국어국문학 전공과 관련하여 설명해 보았다. 너무 다양한 이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맞춤법이 규범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맞춤법의 장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준발음법'을 비롯한 기타 규정들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을 1부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였고 다만 '표준어 사정 원칙'은 맞춤법과 관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2부에서 다루었다.

이전 작업들을 토대로 이루지는 작업이므로 그래도 좀 쉽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는 달리 무절제하게 늘어만 가는 분량, 이전 기술에 대한 불만 등이 더해지면서 자꾸만 마무리가 지체되기만 하였다. 그 어려움의 끝을 소담하고 효율적인 꾸밈으로 일궈준 편집자 이소희 님께 고맙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자의 편에 서서 따뜻한 후원으로 독려해 준 도서출판 역락의 이대현 사장께는 마음의 빚을 무겁게 지고 말았다. 감사드린다. 작은

일에도 돌아보면 언제나 감사와 부담이 남는 것인가 보다. 입력과 교정 과정에서 오히려 달갑게 성의를 보여준 심민희, 이상숙 선생들에게는 몇 끼 식사로는 때울 수 없는 신세를 지고 말았다.

언제나처럼 컴퓨터 옆에 커피 한 잔을 가져다 놓을 줄 아는 아내와 삐뚤삐뚤 일기를 쓰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논술이 어렵다며 투정을 부릴 만큼 커 버린 유진이에게 이 책이 도움과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2009년 겨울

최 병 선

차 례

제 1 부 | 교양의 조건, 맞춤법

제 1 장 일상생활과 어문 규정 • 11

1. 한국어문규정의 구성과 특징 | 13
2. 생활 속의 맞춤법 | 18
3. 맞춤법과 글쓰기 | 23
4. 정서법 수준 향상 전략 | 26

제 2 장 기본 규정들의 이해와 적용 • 30

1. 사이시옷 | 31
2. 두음 법칙의 예외들 | 37
3. 단어 결합 시 소리가 덧나는 경우 | 41
4. 띄어쓰기 | 46
5. 로마자 표기상의 문제들 | 57

제 3 장 한글, 낯설게 보기 • 65

1. 한글 명칭의 유래 | 69
2. 한글날의 유래 | 71
3. 〈훈민정음〉의 발견 | 74
4. 문자 창제의 원리 | 77
5. 사라진 문자들 | 80
6. 자모 명칭의 유래 | 80
7. 한국말의 계보학 | 88

제 4 장 어휘 사용의 점검 • 93

1. 어휘 사용의 오류 | 94
2. 구별이 어려운 어휘 | 121
3. 어색한 사용 | 145

제2부 | 국어 어문 규정의 원칙

제1장 〈한글 맞춤법〉의 원리 • 151

제2장 한글 맞춤법의 이해 • 156

제3장 표준어 사정 원칙 •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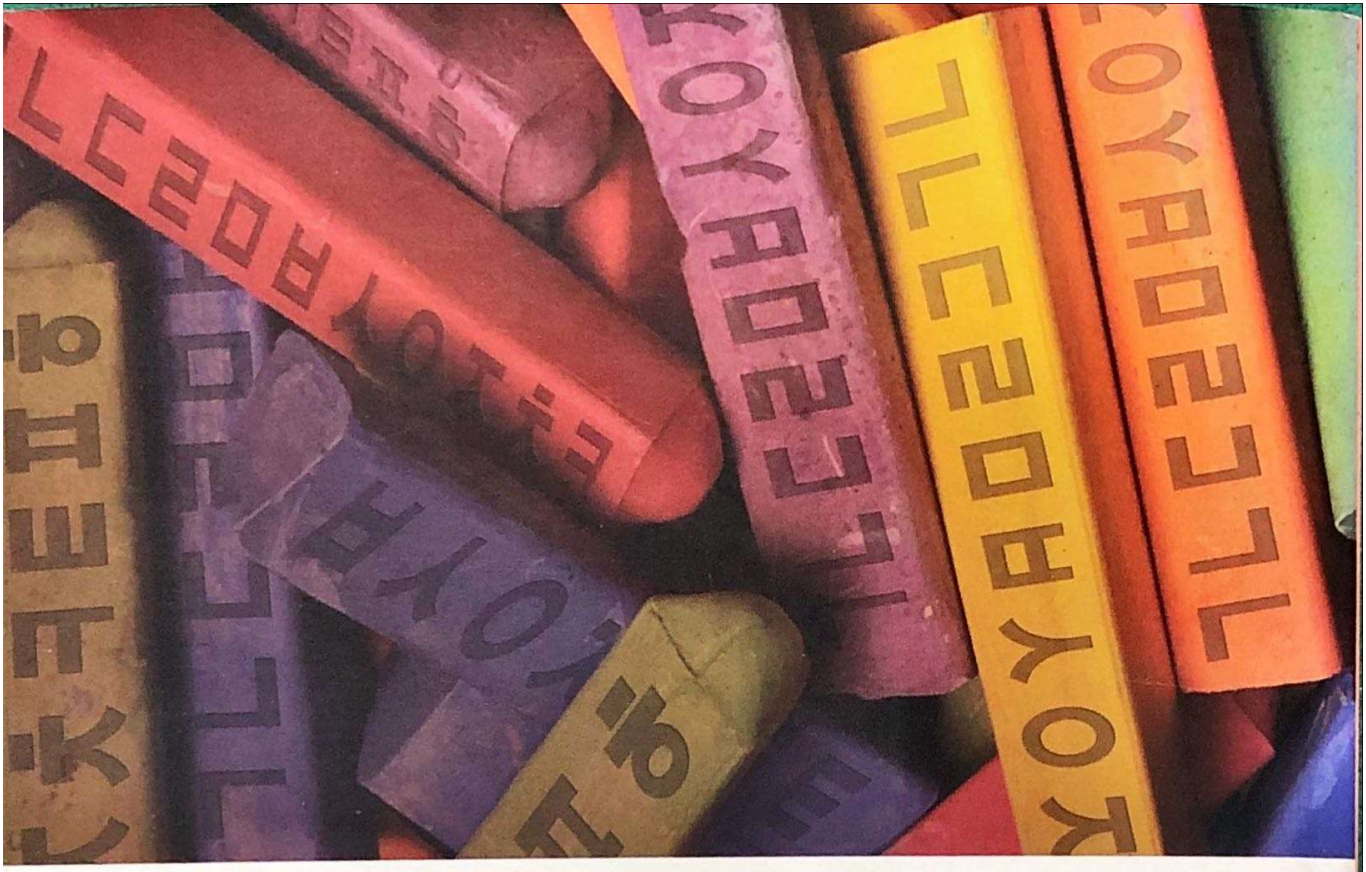
▌참고문헌 ___ 363

▌찾아보기 ___ 365

부록 |

표준 발음법 | 373

로마자 표기법 | 386



부산회집

흔히 볼 수 있는 간판이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원래 '부산집'이라는 상호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회'를 취급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중간에 끼워 넣은 것인지 혹은 원래 상호가 '부산회집'인지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맞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라면 '부산횟집'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 된다. 이유는 '사이시옷'과 관련이 있다.

길을 걸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 있는 지식 쌓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표기의 원리와 규칙을 제시하는 한글맞춤법의 규정 몇 개만 익혀두면 되는 것이다.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HƯ
Mã sách: 070704634

03710
9 788955 567434
ISBN 978-89-5556-743-4

정가 15,000원